

연패의 늪 KIA '기본'에 답 있다



'호랑이 군단'이 '기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144경기를 치르다 보면 뼈아픈 역전패도 나오고 긴 연패에도 빠지게 된다. 하지만 KIA 타이거즈의 최근 연패는 '기본'을 잊은 실망스러운 패배들이라는 점에서 아

쉽다. 지난 24일까지 8연패 기간 KIA 마운드는 무려 74실점을 하면서 흔들렸다. 이 기간 KIA의 득점은 38점에 그쳤다. 그나마 상승세를 보였던 타선이 다시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4경기에서는 20개의 안타로 만들어낸 8점이 전부다.

속절없는 실점 뒤에는 스트라이크와 싸우는 투수들이 있었다. 8연패 기간 KIA 마운드는 53개의 사사구를 남발하며 위기를 자초했다.

기본적인 승부부터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싸움에서 밀리는 양상이 됐다. 투수들이 마운드에서 자신 있게 승부를 하지 못하면서 야수진의 집중력도 동시에 떨어졌다.

지난 24일에는 KIA 마운드가 모처럼 단 하나의 볼넷만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수비에서 김이 섰다.

1회말 수비에서 선두타자 이천웅의 타구가 내야 잔디 경계를 맞은 뒤 바운드되면서 2루수 박찬호의 글러브를 피해 우전 안타가 됐다. 기본 나쁜 안타에 이어 이번에는 실책이 나왔다.

오지환의 땅볼 타구를 잡은 1루수 김주찬이 2루에 있던 김선빈에게 악송구하면서 1루수 실책과 함께 무사 1·2루가 됐다.

이어 터너는 이날 KIA의 유일한 볼넷을 허용하면서 무사 만루에 몰렸고, 채은성의 희생플라이와 유강남의 땅볼로 2점을 내줬다.

터너는 2회 후 아웃까지 쉽게 잡아가면서 안정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정주현과 이천웅에게 연속 안타를 맞은 뒤 오지환의 우측 2루타로 바로 2실점을 했다. 그리고 김현수를 상대한 터너가 외야 플라이로 이닝을 마무리 하는 것 같았지만 좌익수 최형우의 타구 판단이 좋지 못했다.

최형우의 스타트가 좋지 못했고 결국 공은 글러브를 피해 외야로 떨어졌다. 이후 2점을 더 내준 뒤 이닝이 끝났다. 야수진의 잇단 실수와 함께 터너의 투구수는 58개에 이르렀다.

0-7으로 뒤진 5회에도 수비가 터너를 붙잡았다. 포수 유강남과의 승부에서 터너가 땅볼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지만 3루수 류승현의 볼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야안타가 기록됐다. 이어 박용택과의 승부에서 1루수 앞 땅볼이 나왔지만, 앞선 악몽이 되살아났다.

역시 1루수 김주찬이 2루 승부를 선택했지만 정확하게 공을 던지지 못하면서 2루에서 대기하던 김선빈이 아웃을 만들지 못했다. 전날 좌익수 자리에서도 아쉬운 수비를 보여줬던 김주찬은 이날 두 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터너



김주찬



최형우

마운드

최근 8연패 74 실점... 38 득점 불과
경험 부족 영건들 위기관리 능력 부족
벤치, 주먹구구 운영방식 그대로
부상관리 실패에 불펜 부담... 부상 도미노

타격

최근 4경기 안타 20개 8득점
득점권 타율 0.239... 10개 구단 꼴찌
선수들 자신감 하락 실책으로 이어져
공격피칭·수비안정·작전수행 초심 찾아야

여기에 엉성한 수비에 평정심을 잃은 터너가 그라운드에서 감정을 그대로 노출한 점도 아쉬웠다. 타석에서의 집중력도 문제다. KIA는 득점권에서 10개 구단 중 가장 낮은 0.239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팀 타율은 0.250으로 전체 9위. 세밀한 플레이도 아쉽다. KIA는 24일 이창진의 2루타로 1회초 공격을 시작했다. 선취점을 만들기 위해 2번 류승현에게 번트 지시가 내려졌지만 공이 높게 뜨면서 투수 플라이가 되고 말았다. 이창진이 대신 도루로 3루까지 진루했지만 김주찬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최형우는 조구에 힘없는 중견수 플라이로 아웃됐다. 벤치의 '플랜 B'도 부족했다. 시즌 초반 KIA의 '젊은 마운드'는 예상외의 활약으로 탈라진 불펜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경험 부족의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다. 그리고 초반 타자들의 부진 속에 불펜의 부담이 가중됐고, 마무리 김윤동이 부상으로 무너지면서 예상보다 일찍 마운드가 요동쳤다. 하지만 부상 관리 실패 속 효율적인 불펜 운영에 실패하면서 KIA의 주먹구구식 마운드 운영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정확하고 공격적인 피칭, 안정된 수비, 확실한 작전 수행, 효율적인 선수 구성과 운영이라는 '기본'이 흔들리면서 KIA는 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연패 탈출을 위해 기본부터 다져야 한다. 한편 25일 잠실구장에서 예정됐던 KIA와 LG의 시즌 5차전은 비로 취소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즈, 13년만에 일본행

10월 24~27일 PGA 조조 챔피언십 참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대회 출전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우즈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첫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대회인 조조(ZOZO) 챔피언십에 참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우즈가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2006년 일본프로골프 투어 단륙 피닉스 토너먼트 이후 13년 만이다. 우즈는 단륙 대회에서 2004년과 2005년 연속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01년에는 일본에서 열린 월드 컵 골프에도 참가했다. 우즈가 마지막으로 출전한 아시아 지역 대회는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CIMB 클래식이었다. 조조 챔피언십은 도쿄 외곽의 아리코다야 골프 나라시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총상금은 975만 달러이고 우승자에게는 페덱스 포인트 500점을 제공한다. /연합뉴스

난파선 된 '김호철號'

프로팀 감독 시도 발각 자격 정지...6월 소집 불투명

남자배구 국가대표팀이 김호철(64) 감독의 1년 자격정지 여파로 당분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남자대표팀은 1, 2진으로 나눠 5, 6월에는 2진급 선수로 담급질한 뒤 7월부터 1진급 선수들을 소집해 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3월부터 대표팀을 이끌어왔던 김호철 감독이 프로팀 OK저축은행 감독을 맡으려고 시도한 게 발각돼 사실상 사령탑직을 박탈당하면서 대표팀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남자대표팀 사령탑 공백 사태가 해소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2진급 중심의 6월 소집은 아예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7월에는 8월에 열린 올림픽 대륙간 예선 준비를 위해 1진급 선수들이 소집된다. 이때는 프로 7개 구단의 간담급 선수들이 대거 차출되는 만큼 그전까지 새 사령탑 선임을 마쳐야 올림픽 예선 준비에 나설 수 있다. /연합뉴스

정 위반으로 자격이 1년 정지됐으나 불복할 경우 26일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배구협회는 일단 김 감독의 재심 청구 여부 상황을 지켜본 뒤 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대표팀 감독 선임권을 가진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최전석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해 경기력향상 위원장부터 뽑아야 하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다. 남자대표팀 사령탑 공백 사태가 해소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2진급 중심의 6월 소집은 아예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7월에는 8월에 열린 올림픽 대륙간 예선 준비를 위해 1진급 선수들이 소집된다. 이때는 프로 7개 구단의 간담급 선수들이 대거 차출되는 만큼 그전까지 새 사령탑 선임을 마쳐야 올림픽 예선 준비에 나설 수 있다. /연합뉴스



강정호

류현진 vs 강정호 '절친 대결'

내일 다저스-피츠버그전...등갑내기 빅리그 첫 만남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32)이 등갑내기 맞수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첫 대결을 준비한다. 다저스 구단은 25일 취재진에게 배포한 게임 노트에서 류현진의 등판 일을 공개했다. 류현진은 2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리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5번째로 선발 등판한다. 이번 등판은 강정호와와의 한국인 투타 대결로 더욱 관심을 끈다. 2013년 KBO리그에서 최초로 빅리그로 직행한 류현진과 2015년 류현진의 뒤를 이어 KBO리그에서 빅리그로 진출한 최초의 야수 강정호는 아직 빅리그에서 맞붙은 적이 없다. 류현진이 한창 활약하던 2013~2014년엔 강정호가 없었고, 강정호가 빅리그에 발을 내디딘 2015년 이후엔 류현진이 수술로 재활 중이었다. 강정호가 서울에서 음주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2017년을 통째로 날리고 2018년 어렵사리 빅리그에 돌아온 후에 류현진이 부상에서 복귀한 후에도 격돌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올해에서야 드디어 명석이 깔렸다. KBO리그에서 성적은 류현진이 강했다. 류현진은 강정호를 상대로 홈런 1개 포함 안타 5개(타율 0.167·30타수 5안타)만 내줬다. 강정호는 류현진이 미국에 진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등판한 2012년 10월 4일 경기에서 솔로 홈런을 때렸었다. 왼쪽 사타구니 부상으로 잠시 선발진을 떠나긴 했지만, 올해 초반 페이스도 류현진이 강정호보다 낫다. 류현진은 2승 1패, 평균자책점 3.10을 올렸다. 21일 밀워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치른 부상 복귀전에서 비록 시즌 첫 패배를 안았지만, 시즌 최다인 삼진 9개를 뽑아내며 5.2이닝을 2실점으로 버텼다. 류현진은 올해 홈에서 2승, 평균자책점 2.08, 이닝당출루허용률(WHIP) 0.77을 기록할 정도로 유독 강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즌 3승 사냥에 나선다. /연합뉴스



류현진

230번 시도 끝 '홀인원'

舍利번, 유러피언투어 프로젝트 세번째만에 성공

유러피언투어의 '홀인원 성공하기' 프로젝트가 세 번째 시도 만에 성공을 거뒀다. 유러피언투어는 2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앤디 셸리번(32·잉글랜드)이 런던 골프 클럽의 171야드 11번 홀(파3)에서 홀인원에 도전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총 500번의 기회를 주고 홀인원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실험이다. 유러피언투어가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은 2017년 10월 에도아르도 몰리나리(이탈리아), 지난 해 11월 브랜던 스톤(남아공)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몰리나리는 145야드, 스톤은 184야드의 파3홀에서 500번씩 샷을 시도했으나 한 번도 홀인원을 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세 번째 주자로 나선 셸리번은 230번째 샷을 홀인원으로 연결한 뒤 환호했다. 앞서 몰리나리와 스톤의 시도 횟수를 더하면 총 1230번 만에 나온 홀인원이다. 이날 홀인원에 성공한 셸리번은 유러피언투어에서 개인 통산 3승을 거둔 선수다. /연합뉴스